테마독서 어린이 불서

감동·재미 갖춘 책 고르라

겨울방학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어떤 책을 권해야 할까? 불서코너를 살펴보면 불교의 가르침을 감동과 재미를 곁들여 전하는 책들을 찾을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어린이들에게 가장 친숙한 매체는 만화책이다. 불서 가운데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에서부터 불교설화, 고승, 경전 등 다양한 종류의 만화책이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책 중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즐겨 찾는 책은 '불생경'에 실린 설화를 골라 묶은 '만화로 보는 어린이 팔만대장경' 시리즈다. <석가모니 지혜동화>(은하수미디어)에는 '꾀 많은 자라' '앵무새가 일으킨 기적' 등 삶의 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36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고, <석가모니 슬기동화>(은하수미디어)에는 '제석천과 인자한 왕' '재를 먹은 도둑' 등 38편이 실려 있다. 이밖에도 부처님께서 태어나 깨달음을 얻고 45년간 설하신 가르침에서 요긴한 부분들을 모아 엮은 <불타석가모니>(전3권, 불교만화사), 성철 스님의 삶과



만화책 동화집 등 종류 다양
'…어린이 팔만대장경' 권할만

수행을 그린 <성철 큰스님>(불교만화사), 편양 언기 스님의 일대기를 담은 <왕눈이 스님>(운주사) 등이 권할만하다.

동화집으로는 <불생경>, <자타카> 등 경전 속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것들이 주를 이루지만 창작동화집의 부피도 제법 두툼하다. <선암사 연두 꽃잎 개구리>(이경혜 지음, 파랑새 어린이)와 <스님은 황금을 메고 어디로 갔을까>(김영만 지음, 다림)는 창작동화집 가운데 최근 가장 호응을 얻고 있는 책이다. <선암사 연두 꽃잎 개구리>에는 연둣빛 점을 가진 동자승과 개구리의 따뜻한 우정,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따스하게 전해지는 '선암사 연두 꽃잎 개구리' 등 6편의 동화가 실려 있다. <스님은 황금을 메고 어디로 갔을까>는 세모와 그의 친구들이 백운사에 갔다 오는 과정을 통해 절에서 향을 피우는 이유, 기도와 불공의 참뜻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또 동화 뒤에 '간추린 불자예절 50문 50답'을 실어 불교예절을 쉽게 익힐 수 있게 한다.

창작 그림 동화집 <이 땅에 오신 석가모니>(B·B 아이들), <누가 아기 석가모니로 태어났을까>(문학동네), <미래에 오는 미륵불>(문학동네)은 삽화가 돋보이는 책들로 저학년 어린이들이 보기에 알맞다. 주말을 이용해 사찰이나 박물관에 갈 계획이라면 <한눈에 보는 우리 문화재>(웅진닷컴)가 도움이 될 듯하다. 불국사와 성덕대왕 신종 등 우리 문화재 12가지를 선정, 사진과 함께 문화재 전반에 대한 상식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전해준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서구인이 불교에 빠진 까닭

'붓다의 깨달음' 서장원 옮김

동양의 큰 가르침인 불교는 이제 서구세계마저 감화시켜 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까닭은 무엇일까. 1972년부터 불교를 연구하기 시작하여 스리랑카와 워싱턴대학에서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한 종교학자 톰 로웬스타인은 "위대한 의사로 일컬어지는 부처님은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괴로움을 진단하고, 각자가 노력을 통해서 그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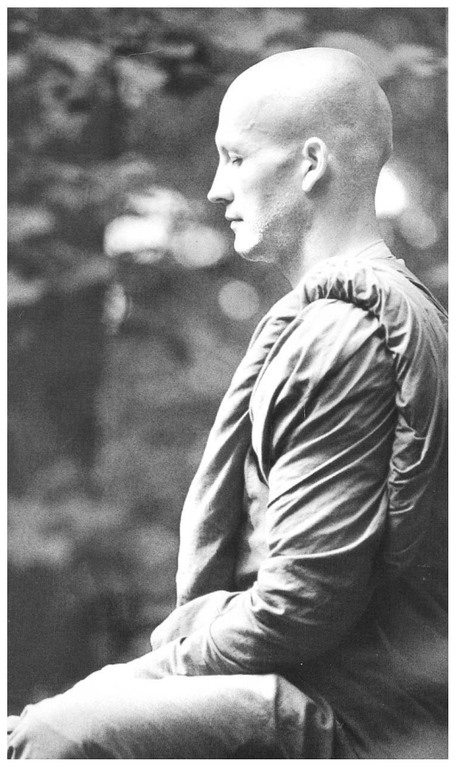
톰 로웬스타인이 쓴 <붓다의 깨달음>(서장원 옮김, 창해)은 서양인의 시각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고, 불교는 무엇을 가르치는 종교인지를 간명하게 해설한 불교 입문서다. 그렇다고 서양화된 불교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현학적인 서술을 배제하고 간명한 문장으로 불교의 전모를 드러낸다. 우선 지은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 생로병사의 허무함을 보고 유랑길에 오르는 데에서부터 깨달음을 향한 정진, 전생에 대한 회상, 깨달음 그리고 열반 등에 이르는 전기적인 부분과 핵심교리를 개관한다. 그리고 나라별로 불교를 소개한다.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의 초기불교를 살핀 다음, 스리랑카·중국·일본·티베트 등 동남아시아와 서방세계로 불교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추적한다. 특히 단순한 전파과정 소개에 머물지 않고 철저한 고증과 자료를 통해 각 나라마다의 특징을 풀어낸 점은 불교에 대한 지은이의 해박함이 묻어난다.

고증통해 불교전래 추적
나라별 불교특색 조명

일본 불교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데 비해 한국불교에 대해서는 조금의 언급도 없다는 점이 아쉽다. 이는 한국 불교의 세계화가 아직은 미미한 수준임을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마지막 장에서는 불교가 유럽과 북미에 소개된 이후 지금과 같은 형태로 어떻게 성장하게 됐는지를 현대불교의 모습을 통해 되짚어 본다. 특히 불교의 어떠한 점이 서양인들에 강력한 호소력을 지닐 수 있었는지, 그 정신적 가르침의 총체는 무엇인지를 집중 조명한다. '참고자료'에는 인도의 부다가야 등 동남아 8개국의 주요 불교 성지와 틱낫한, 숭산, 마하 고사난다, 달라이 라마 등 현대 불교 스승들의 이력과 사상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영국 던칸 베어드 출판사가 여러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탐색한 '살아있는 인류의 지혜(The Vision of The Buddha)' 시리즈 첫 번째 권으로 출간된 이 책을 번역한 도서출판 창해는 <인도의 신비>, <동물의 영혼> 등 모두 10권을 펴낼 예정이다. 값 2만5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영국 치터스트사원에서 명상에 잠긴 수행자의 모습.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행복

'달라이 라마의…' 류시화 옮김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류시화 옮김, 김영사)은 달라이 라마의 책이지만 단순한 불교서적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 하워드 커틀러와 티베트의 고승 달라이 라마가 '행복'이라는 주제로 대화한 것을 묶은 행복 지침서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하워드 커틀러는 달라이 라마에게 도발적으로 묻는다. "당신은 행복한가." 그러자 나라를 잃고 아직도 수많은 난민들과 함께 살고 있는 달라이 라마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대답한다. 또 달라이 라마는 외롭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혀 외롭지 않다"고 답한다. 그 자신은 매 순간 모든 인간 존재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이들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며, 늘 나와 공통된 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렇듯 달라이 라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속에 늘 떠오르는 질문들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값 9천5백원.

김중근 기자

원효 스님 염불수행법



정목 스님 역해 '도로아미타불'

염불의 여러 형태 가운데 그 모체가 되는 것이 바로 '나무아미타불'이다.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 그리고 그 세계에 태어나게 하는 실천적 지혜를 설한 정토경전 가운데 하나가 <아미타경>이다. 하지만 이 경에 대한 불자들의 이해는 그리 높지 않다. <아미타경소>는 불자들 특히 염불행자들에게 <아미타경>에 대한 이해와 염불수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원효 스님이 번역한 것이다.

정목 스님이 역해한 <도로아미타불>(경서원)은 바로 원효 스님의 <아미타경소>와 <유심안락도>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부록으로 대승의 사상으로 업의 실상을 사유하여 업장을 녹이는 참회법을 담은 원효 스님의 <대승육정참회>도 실었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운주사 천불천탑
미륵세상 꿈꾸고…

박혜강 지음 '운주'

화순 운주사 천불천탑은 언제, 누가, 무엇 때문에 조성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역사의 불가사의로 남아 있는 천불천탑의 건립 동기와 주체 그리고 묘청의 난 등 당대의 여러 사건을 풍부한 자료와 상상력을 버무려 재구성한 장편소설 <운주>(전5권, 이룸)가 나왔다.

묘청은 인종에게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서경천도를 주창한다. 그러나 서경천도를 반대하는 김부식을 필두로 한 개경파는 칭제건원에 반기를 든다.

한편 신궐 공사장에서는 천불동의 천불천탑이 있는 그곳이 용화정토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한다. 순보는 미륵세상을 꿈꾸며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이 때 순보는 입분이와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오래전 그녀와의 인연을 기억하게 되나 다음을 기약하며 천불동을 향해 떠나고 만다.

순보와 삼정이 일행은 미륵세상을 찾아 떠나는 백정농민들은 김부식이 이끄는 토벌군과 맞서는 등 온갖 역경을 헤쳐 나가며 천불천탑 건설로 미륵세상을 꿈꾼다는 것이 소설의 중심 줄거리다. 값 각권 8천원. 김중근 기자

마음 내려 놓을때 진리보인다



제이콥슨 '지금 이 순간'

호주 출신의 레너드 제이콥슨이 제시하는 깨달음의 길과 삶의 지혜를 담은 <지금 이 순간>(침묵의 향기)이 나왔다. 지은이는 우리가 찾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또한 어떻게 하면 가상현실에 불과한 마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완전히 현존할 수 있는지를 시 형식으로 간명하게 얘기한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금강경 역해	각 묵	불 광
2	꽃담	해 만	시 공 사
3	풍경소리	풍경소리	샘 터
4	생활 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5	찻잔 속에 담이 뜨네	지 운	법 공 양
6	불교수행의 이론과 실제	근본불교학교출판부	근본불교학교
7	현대관음기도 영험론	성 일	불 광
8	마음 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 공 양
9	거울	원 성	이 레
10	나의 행자시절	박 원 자	다할미디어

도서 안내:(02)737-0695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터넷 도서 주문 전화:02)737-0695 팩스:02)737-0696 Book